

여천NCC 중심 여수 석유화학산단 재편 속도

전남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기지인 여천NCC를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번 사업 재편 핵심은 범용 제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전환해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에 대응한다는 점이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여천NCC·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4개사가 여수산단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지분 50%씩을 보유한 합작회사다.

롯데케미칼은 여수산단 내에 나프타분해시설(NCC)을 중심으로 공장을 운영 중이다.

산업부에 사업재편계획서 제출...여수 2·3공장 폐쇄 롯데·한화·DL 등 통합법인 설립...고부가 전환 박차

여천NCC 1~3공장 중 이미 가동이 중단된 3공장 외에 2공장을 추가 폐쇄하는 방안이 최종안에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생산량이 각각 91만5000t, 47만t에 달하는 여수 2·3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여천NCC 생산량은 기존 228만에서 90만t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천NCC는 에틸렌 생산 설비를 합리화한 뒤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과 합쳐 통합법인을 세울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전남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전경

DL케미칼 등 통합법인이 지분을 분할해 보유하게 되면서 세 회사가 동등한 책임을 지고 사업 재편에 필요한 자금과 리스크를 나누게 된다.

여수산단 기업들의 구조개편안 제출에

맞춰 정부 각 부처들도 심사와 지원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의 기업결합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회사가 기업 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정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만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구조변경과 사업혁신 등 사업 재편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재무 건전성 확보가 가능한지 등 목표 달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다.

사업재편안이 최종 승인되면 정부는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세제 지원, 상법 특별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기존 인센티브와 함

께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가동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여수산단 사업 재편계획서 제출로 여수 지역 내 NCC와 합성수지 제품 등의 생산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프타분해설비에서 생산된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계열화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결합이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과 인접 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대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윤용성 기자 yoy1404@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18@gwangnam.co.kr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0일 광주 위더스웨딩홀에서 '2025년 사업평가 및 2026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한 해의 경영 성과를 되짚는 한편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신협 광주전남본부 “위기를 기회로, 재도약 광주전남”

사업설명회 열고 내부유보·건전성·상생 3대 과제 제시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한 해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0일 광주 위더스웨딩홀에서 '2025년 사업평가 및 2026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한 해의 경영 성과를 되짚는 한편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신협의 성과를 치하하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

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87개 신협 이사장과 상임이사, 실무책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시상식, 3부 2026년 사업 목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윤병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육규·문경환 중앙회 이사의 환영사, 고영철 중앙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최근 선거를 통해 선출된 23명의 신협 이사

장 소개가 더해지며 현장 분위기는 한 층 고조됐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우수직원 17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고, '2025년 조합 종합경영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종합 경영대상은 장성신협이 차지했으며, 군별 경영대상은 광주원광신협(1군), 영암신협(2군), 장성우리신협(3군), 광주교회신협(4군), 완도신협(5군)이 각각 수상했다.

실적 성과와 함께 향후 전략도 제시됐다. 지난해 광주·전남 신협 자산은 17조2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500억원(5.2%)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본부는 2026년 슬로건을 '위기를 기회로, 재도약 광주전남'으로 정하고, 내부유보 강화와 건전성 제고, 상생 발전 활성화를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조직관리와 여신, 수신 등 전 부문에서 조합 경영력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장의 헌신과 리더십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낸 데 깊이 감사드리다"며 "중앙회 역시 보다 밀착된 지원을 통해 지역 신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농축협 채권관리 담당자 실무교육 역량 강화·건전여신 관리기반 마련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농·축협 채권관리 책임자와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채권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축협 채권관리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연체채권 관리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연체채권 관리 방향 △개인채무자 보호법 관련 실무 △채권 회수 사례

및 채권 매각 업무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적극적인 채권관리를 통해 연체율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채권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이 상호금융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연체관리의 건전여신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20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농·축협 채권관리 책임자와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채권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GICON, 'GCC 사관학교' 3기 교육생 100명 모집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선도할 인재를 찾는다고 밝혔다.

GICON은 문화콘텐츠 전문 창·제작자 양성 과정 'GCC 사관학교' 3기 교육생 100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3기째를 맞이하는 GCC사관학교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GICON이 운영하는 콘텐츠 인재 양성 교육 플랫폼으로,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실무형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GCC사관학교는 △실감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문화콘텐츠 4대 핵심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3기는 생성형 AI 기술과 콘텐츠 산업을 접목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AI 활용 콘텐츠 융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또 교육과정에는 기업 연계 팀 프로젝트를 포함해 콘텐츠 기업과 협업하는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수요 후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 양성에 중점을 뒀다.

GCC사관학교는 1기 132명, 2기 106명의 문화콘텐츠 인재를 배출해 이 중 120여명의 수료생이 취·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GICON은 취·창업 개별 멘토링, 취업 박람회, 취업 지원위원회 운영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수료생의 취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3기 교육생은 4월 13일에 개강해 약 7개월간 기본 교육·심화 교육·기업 연계 팀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ICVFX엔지니어 △3D 아티스트·디자이너 △언리얼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자 △3D 애니메이션 제작 △웹툰 콘텐츠 제작자 등 콘텐츠 분야 창작 역량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교육은 GCC(광주실감콘텐츠쿠브)와 광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전문 교육장비를 이용하며 전 과정 무료로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39세 이하 콘텐츠 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 청년 미취업자 100명 내외로, 27일까지 GCC사관학교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4월 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GCC사관학교는 앞선 수료생들의 우수한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콘텐츠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3기 교육생들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선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i@gwangnam.co.kr

광주시 '유통플랫폼 MD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200곳 대상...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소상공인 유통플랫폼 상품기획자(MD) 상담회' 참가업체 200곳을 오는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상담회는 국내외 대형 유통플랫폼 상품기획자(MD)와 1대 1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소상공인은 3개 이상 유통플랫폼 상품기획자(MD)와 각각 30분씩 상담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상품 입점과 유통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시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최신 유통 경향 분석과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는 전문가 강연을 함께 운영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역할을 강화할 계획

이다.

상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운영하는 판로정보 플랫폼 누리집 '판관대로'(fanfandaer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상담회는 광주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재)광주경제진흥원생생일자리재단, 소담스퀘어 광주가 공동 주관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기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해 추진한다.

상담회는 5월 21일과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6월 10일 소담스퀘어 광주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남광주농협,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감사장 수여

남광주농협은 최근 신중 메신저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광주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장은 남광주농협 김지영 과장의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에서 비롯됐다. 김 과장은 지난 6월 60대 고객의 타행 무통장송금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일 계좌로 반복적인 송금 시도가 이어진 점을 수상히 여겨 이상거래로 판단했다. 이후 거래 목적을 확인하던 중 고객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메신저피싱 정황을 포착했고, 즉시 방위지구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유명인을 사칭해 해외에서 달러와 금, 명품 등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송달비·보안비·테러 방지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신중 금융사기 수법으로 드러났다. 한 번에 고액을 요구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



우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영 과장은 "농협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신중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거래 목적을 더욱 면밀히 확인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중 남광주농협 조합장은 "날로 지능화되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